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 보성군, 체험관광 인기 '차와 차음식 만들기'

### 오는 10월까지 체험장 21개소 운영



녹차수도 보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와 차음식 만들기 체험관광'이 전문 다도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5일간 치러진 제44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35만여명의 관광객이 보성을 방문하고 싱그러움 차향에 심취하여 차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차체험

관광은 보성녹차의 우수성과 차문화 확산 및 체험·채류형 여행 등 관광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군은 체험관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전남도관광협회와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객 유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차만들기'는 한국차문화공원에 자리한 차 만들어 보는 '곳'을 비롯해 18개소 체험장에서 차만들기, 차 만들기, 다례교육 등이 가능하고,

'차음식 만들기'는 관내 체험장 3개소에서 녹차수제비 및 녹차비빔밥 등 차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각 체험장은 체험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비롯한 시음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차와 차음식 만들기는 실속있는 관광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연초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의 차 애호가, 가족단위, 학교 체험 학습장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차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http://bosong.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단체 20인 이상 가능하고 체험료는 1인당 1만5천원이며 예약은 전남도관광협회 전화(061-285-0833)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단체 관광객은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료를 지불하면 거리에 따라 30~45만원의 관광버스 인차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청년농업인 성공의 꿈, 장성군에서 이룬다

### 지역 미래농업 이끌 젊은 영농인재 발굴·육성 앞장

장성군이 '청년 연어' 육성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 장성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성군은 전체 인구 4만7,200여명의 24%가량인 1만1,6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복합도시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 수위를 다룰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청년 농업인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심각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 구현한 덕분에 산업연구원(인구고령화를 극복하는 지역들 성장 원천은 무엇인가? 보고서)으로부터 '초고성장·초고

령 지역' 유형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청년 농업인 육성이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장성군은 젊은 영농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 인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와 농업 분야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만 18~39세 대상인 이 사업이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지난해 12월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열어 농업 현장에서 불거진 청년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프로그램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농산업 창업가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창업 후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창업 농장 조성사업',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등 6개 사업이 있다.

장성군은 영농 초기 정착이 어려운 새내기부터 청년 사업가로 거듭나려는 전문 농업인까지 단계별로 청년 농업인 지원을 지원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영농 정착을 돕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지정 1:1 컨설팅, 청년연어 멘토링 지원, 감소농 연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농업·농촌에서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고흥분청도자 대중화 위한 '도예강좌' 운영



많은 이가 고흥분청도자의 흥미와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오는 5월 31

일부터 '분청사기 도예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도예강좌는 '고흥분청사기의 기초이론 및 분청사기 제작'을 주제로 2018. 5. 31(목)부터 8. 16(목)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분청사기 제작 기법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된 강좌는 코일링, 판성형기법 등 분청사기 제작의 기초 이론 교육과 분청사기의 7

가지 기법을 활용한 분청사기 제작, 물레를 활용한 분청사기 제작, 초벌과 재벌을 통한 분청사기 구워내기 등 실습으로 진행된다.

도예강좌 강습비는 재료비와 소성비를 포함하여 10만원으로 오는 2018년 5월 30일(수)까지 전화 061-880-5555(또는 5990)으로 수강 신청 가능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신안군, 고추 병해충(TSWV) 방제 당부

신안군은 최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의 발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고추포장에서 바이러스병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칼라병'이라고 부르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보복한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해 옮겨져 피해가 발생하는 병으로 초기 방제가 미흡할 경우 빠르게 전포장으로 감염된다.

감염된 식물체는 생장점과 신엽 부분이 모두 검게 말라죽게 되며, 어린 고추는 검게 변하지만 성숙한 과실은 얼룩덜룩한 무늬를 띄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고추에 토마토 반점위조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고추 터널을 벗긴 직후 반드시 꽃노랑총채벌레 진용약제로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구례군, 복지사각지대 발굴평가 우수기관

구례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으로 정하고 추운 겨울 방치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굴기간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실태 등 11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모범사례 기관 11개 지자체와 실적우수기관 10개 지자체 등 전국에서 21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구례군은 전년 대비 9배 가까운 실적 증가를 이루어 실적우수

자치체로 선정되었다.

구례군은 해당 기간 군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진단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읍면 협의체 위원, 기업·단체·독지가의 인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연계,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이장, 주민 등이 한마음으로 나선 결과와 생각한다"며, "민관협력 등을 통한 인적 안전망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로 어려운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함평군 신규공무원 반부패·청렴실천 의지 다져



### 청렴 서약식 개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신규 공무원들이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24일 함평군립도서관에서 신규공무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약식에서 함평군 신규공

무원들은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과 같은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반부패·청렴 서약문에 서명했다.

본 교육에서는 청렴연수원 정영오 강사를 초빙해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군민"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

을, 기획감사실 정희섭 감사담당기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사항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사례별로 강의했다.

또, 회계 원칙과 절차, 세출예산 집행기준, 실무사례 등의 현장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회계실무 역량 강화에도 신경 썼다.

안 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그동안 '청렴이 기본이 되는 함평실현'을 목표로 청렴업무개선, 청렴주의보 발령,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주 2회 추진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부·자문위원회)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